

## 사냥에 관한 漢字의 字源 考

姜 惠 淑\*

< 目 次 >

I. 序論	2. 사냥의 道具와 方法
II. 사냥과 관계있는 漢字의 字源	3. 사냥의 時期
1. 사냥의 總稱	III. 結論

<국문 초록>

본고는 사냥에 관한 漢字의 字源을 분석한 논문이다.

오랜 옛날 사냥은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후 농경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사냥의 대상이었던 동물을 기르는 목축을 시작하면서 사냥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단순히 음식을 얻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심신의 단련, 군사 훈련, 오락, 제사에 바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이유로 사냥을 즐기게 되었다. 인류는 짐승을 사냥할 때 활과 창 등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개나 매를 이용하여 사냥감을 쫓거나 덫, 울무, 함정을 만들어 짐승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였다. 여러 가지 사냥 방법은 큰 변화 없이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사냥과 관계있는 한자 속에 그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한자의 근원을 분석하면 고대의 사냥 방법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는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가 발달하였고, 부호나 기호의 단계를 거쳐 문자가 발생하였다. 문자는 필요에 의해 만들었으므로 문자를 창조한 배경

\* 공주대학교 강사 / [khsuk1780@hanmail.net](mailto:khsuk1780@hanmail.net)

에 당시의 사회상 등이 나타나 있다. 한자는 수 천 년 동안 사용해온 문자이므로 한자의 의미를 분석하면, 고대의 문화, 사회, 정치, 풍습 등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漢字에 나타난 문화 중 사냥을 의미하는 한자의 字源을 분석함으로써 사냥의 의미, 도구, 방법, 계절별 사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사냥, 사냥의 道具, 사냥의 方法, 사냥의 意味, 사냥의 時期

## I. 序論

인류는 오랜 옛날 사냥과 채집, 어로 등을 통해 음식을 얻어서 생존을 유지해 왔다. 이후 인류는 농경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사냥의 대상이었던 동물을 직접 기르는 목축을 하면서 사냥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사냥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고, 문명화되면서 단순히 음식을 얻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심신의 단련, 군사 훈련, 오락, 제사에 바치기 위한 것 등으로 의미가 변하였다.<sup>1)</sup> 현대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스포츠나 취미로 사냥을 즐기고 있다.

여러 經傳에도 사냥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禮記·月令』의 사냥의

1) [네이버 지식백과] 심신단련을 위한 사냥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사냥의 방법과 도구),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06. 19. 21시 검색. : 심신 단련을 위한 사냥은 짐승을 잡기보다, 이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튼튼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사냥의 본보기는 신라 진흥왕(540~576) 대에 공인된 화랑도에서 찾을 수 있다. 화랑의 사냥 기록은 『삼국유사』에 보인다(권제 4 「二惠同塵」). 國仙 구담공이 일찍이 赤善村(『삼국유사』에 안강현 적곡촌(赤谷村)이라고 적혔다.) 들에서 사냥을 하던 중에, 惠宿이 나타나 함께 하기를 청하였고, 이리 뛰고 저리 달려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굽고 삶아서 먹었다는 내용이다. 화랑도들이 사냥을 익힌 것은 그것이 실제 상황에 가까운 전투와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시기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달(음력 4월)에는 맹수를 쫓아서 오곡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고 대규모의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한다.(是月也, 驅獸毋害五穀, 毋大田獵.)

이 달(음력 9월)에는 천자가 사냥을 개최하는데, 다섯 가지 병기의 사용법을 익히고 또한 말의 취급규정을 반포한다. 僕(말을 관리하는 관원)과 七驩(飼育長)에게 명하여 모든 수레에 말을 명에하고 수레 옆에는 旌과 旒를 세우게 한다. 이 수레들을 벼슬의 등급에 따라서 하사하니, 수레는 질서정연하게 屏障 밖에 늘어서게 된다. 司徒는 채찍을 띠에 꿰고 北面하여 사냥의 규칙을 위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천자는 이에 그 威儀를 엄하게 꾸미고 활에 화살을 매겨 사냥을 개시한다. 주사에 명하여 사방의 신에게 잡은 짐승으로 제사하게 한다.(是月也, 天子乃教於田獵, 以習五戎, 班馬政. 命僕及七驩咸駕, 載旌旒, 授車以級, 整設于屏外. 司徒搢扑, 北面誓之. 天子乃厲飾, 執弓挾矢以獵, 命主祠祭禽于四方.)

이 달(음력 11월)에는 산림이나 藪澤에서 나물을 캐어 먹는 자가 있거나 또는 사냥하여 짐승을 잡는 자가 있으면 임야의 관리자인 野虞가 이들을 가르쳐 인도해 준다.(是月也, 山林藪澤, 有能取蔬食, 田獵禽獸者, 野虞教道之.)<sup>2)</sup>

위에서 인용한 『禮記·月令』의 내용을 분류하면, 봄에는 사냥하는 일이 농사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금지하였고, 가을에는 천자가 사냥을 개최하여 규칙에 따라 사냥을 함으로써 군신간의 위계질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겨울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했을 때에 임야의 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도 보인다. 『禮記·月令』에서 인용한 것은 몇 문장에 불과하지만 사냥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인류는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가 발달하였고, 부호나 기호의 단계를 거쳐 문자가 발생하였다. 문자는 필요에 의해 만들었으므로 문자를

2) 李民樹 譯解, 『禮記 上』(四書五經 7), 三星文化社, 1985, p.347, p.373, p.385.

창조한 배경에 당시의 생활상, 사회상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父’는 손에 돌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 이는 손에 돌도끼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써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일을 하는 가장, 즉 ‘아버지’를 의미하는 글자로 썼다.<sup>3)</sup> ‘父’의 字形과 字源을 통해 돌도끼를 사용했던 신석기시대에도 가정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남성이었다는 것, 나아가 父系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 자는 수 천 년 동안 사용해온 문자이므로 한자의 의미를 분석하면, 고대의 문화, 사회, 정치, 풍습 등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漢字에 나타난 문화 중 사냥을 의미하는 한자를 선별하여 사냥의 의미, 도구, 방법,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그 字源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Ⅱ. 사냥과 관계있는 漢字의 字源

인류는 짐승을 사냥을 할 때 활과 창 등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개나 매를 이용하여 사냥감을 쫓거나 덫, 올무, 함정을 만들어 짐승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냥을 했다. 전통적인 사냥의 도구는 도끼, 창, 활, 등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한 무기는 ‘활’이다.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3)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64. : ‘父’에 대해 許慎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矩也。家長率教者。從又舉杖。”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3冊, 上海教育出版社, 2001, p.389. : ‘父’의 자형에 대해 羅振玉은 ‘햇불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郭沫若은 ‘父’는 ‘斧’의 初文으로 석기시대에 남자가 손에 돌도끼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父字甲文作, 金文作, 乃斧之初字。石器時代男子持石斧。) ‘父’의 자형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으나 손에 돌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sup>4)</sup>에도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물은 주로 새 사냥이나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周易·繫辭傳』에 “(包犧(伏羲)씨가 끈을 묶어 그물을 만들어 짐승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쳤다.(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sup>5)</sup>라는 기록을 보더라도 그물을 이용한 사냥은 아주 오랜 전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나 매를 이용한 사냥도 오랜 역사를 가진 일반적인 사냥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매나 개를 이용하는 사냥을 즐겼다. 장천<sup>1</sup>호 고분을 비롯해서 안악<sup>1</sup>호 분묘에 그려진 매사냥 장면이 이를 알려준다.<sup>6)</sup> 백제, 고려, 조선에서도 매사냥은 왕족, 귀족층 사이에서 유행되었으며, 조선말에 이르러서는 서민들도 이를 즐겼다고 한다. 본장에서는 사냥의 의미를 총칭하는 한자 및 사냥의 도구나 수단, 또 계절이나 시기, 사냥의 방법, 목적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를 분류하여 그 字源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사냥의 總稱

사냥을 의미하는 여러 한자 중 ‘獵’은 사계절의 사냥을 총칭한 글자이다. 田과 佃, 畋은 ‘밭, 밭을 갈다, 농사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나 그 뜻이 引伸 혹은 轉義되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다음은 사냥을 총칭하는 한자인 ‘獵’, ‘田’, ‘佃’, ‘畋’의 字源이다.

### 1) 獵(사냥할 렵)

許慎은 獵의 字源에 대해 『說文·犬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 네이버 문화콘텐츠닷컴.

5) 朴一峰 譯著, 『周易』, 育文社, 1997, p.591.

6) [네이버 지식백과] 고구려(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사냥의 방법과 도구),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참조.

獵은 '사냥하여 짐승을 쫓는 것'이다. 犬이 뜻을 나타내고, 獵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良涉切(립←립)이다.(獵, 放獵逐禽也. 从犬, 獵聲. 良涉切.)<sup>7)</sup>

許慎은 '獵'의 본의에 대해 '사냥을 하여 짐승을 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放은 소서본에는 '攷'으로 되어 있는데, 『韻會』에는 '效'로 되어 있다. '效'는 아마도 '校'의 잘 못일 것이다. 『白虎通』에 이르기를 '사계절 사냥의 총명을 獵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毛詩』에 '수렵하지 않으면'의 箋에 '겨울 사냥을 狩라고 하고, 밤 사냥을 獵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放小徐作攷. 韻會作效. 效疑校之譌. 白虎通曰 四時之田總名爲獵. 毛詩 不狩不獵. 箋云 冬獵曰狩. 宵田曰獵.)<sup>8)</sup>라고 하였다. 段玉裁가 『韻會』에 '效獵'이라고 한 것을 '校獵'이라고 교정하였는데, '校獵'이란 울타리를 쳐서 새나 짐승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廣韻·葉韻』에 “짐승을 잡는 것이다. … 尸子가 이르기를 '북희씨의 세상에는 천하에 짐승이 많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냥을 가르쳤다.'라고 하였다.(取獸也. … 尸子曰 虛義氏之世, 天下多獸, 故教人以獵也.)<sup>9)</sup>라고 한 것과, 『康熙字典』에서 “『正字通』에 '사냥하여 제사에 바치고 전쟁연습을 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였다.(『正字通』 獵以供俎豆, 習兵戎, 皆國家重事也.)<sup>10)</sup>라고 인용한 말을 살펴보면 '獵'이

7)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5. : '獵'의 반절은 良涉切이므로 한글 음가대로 읽으면 '립'이다. 『說文解字』에 수록되어 있는 反切은 宋代에 『說文解字』를 개정, 증보하면서 덧붙인 것이므로 中古音에 해당된다. 따라서 반절로 표기된 한자음이 현대의 음가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의 음절제약 규칙 등 여러 환경으로 인해 음이 변하였기 때문에 한자음대로 읽을 경우 우리의 한글 음가와 상이한 경우가 많다. 『說文解字』 원본에는 反切이 없었을 것이나 현재의 판본에는 반절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한자의 독음 정보를 위해 반절표기를 하도록 한다.

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76. : 사전적 의미로 사냥을 뜻하는 狩獵과 校獵 가운데 수렵은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이고, 교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을 잡는 일종의 실전훈련을 의미한다.

9)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518.

10) 漢語大詞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p.674.

사냥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獵’의 본의는 ‘사냥하다.’이다. ‘犬(狩)’이 義符, ‘獵’이 聲符인 형성자인데, ‘獵’에 대해 『說文·凶部』에서 “獵은 ‘갈기’이다. 정수리 위의 머리털이 무성한 모양을 상형하였다.(獵, 毛獵也. 象髮在凶上及毛髮獵獵之形.)”<sup>11)</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獵’은 ‘獵’의 성부인 동시에 ‘갈기가 무성한 동물을 사냥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表音作用 및 表意作用을 겸한다.

## 2) 田(밭 전, 사냥할 전)

許慎은 田의 字源에 대해 『說文·田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田은 ‘진열하다.’이다. 곡식을 심는 것을 田이라고 한다. 사방을 에워싼 것을 상형한 것이다. 十은 두둑을 만든 것이다. 무릇 田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田을 따른다. 반절은 待季切(전←던)이다.(田, 陳也. 樹穀曰田. 象四口. 十, 阡陌之制也. 凡田之屬皆从田. 待季切.)<sup>12)</sup>

許慎은 ‘田’의 본의를 ‘진열하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진열하는 것이다. 다른 본에 ‘陳’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잡는다. 陳은 ‘별리다.’이다. … 진열하여 가지런하다는 것을 취하여 田이라고 한다. … 곡식을 심는 것을 田이라고 하고, 채소를 심는 것을 圃라고 하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을 園이라고 한다.(陳也. 各本作陳. 今正. 陳者, 列也. … 取其陳列之整齊謂之田. … 樹穀曰田. 種菜曰圃. 樹果曰園.)”<sup>13)</sup>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田, 圃, 園에 심은 작물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곡

11)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16.

12)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90. : 田의 반절은 待季切이므로 한글 음으로 읽으면 ‘던’이다. 그러나 국어의 음운현상의 하나인 ‘ㄷ’ 구개음화로 인해 ‘ㄷ’이 ‘ㅌ’으로 바뀌고, 경구개음인 ‘ㅌ’ 뒤에서 활음 ‘y’가 탈락하는 음운현상에 의해 모음 ‘ㅌ’이 단모음인 ‘ㅌ’로 변화하여 ‘전’이라는 음가를 가지게 되었다.

13)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694. : 此象甫田之形. … 故十與口皆象其縱橫也.

식이나 채소 등을 심은 장소를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작물을 가지런하게 심은 것에서 ‘진열하다.’라는 뜻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許慎이 ‘田’의 부건 口는 사방을 에워싼 밭의 경계이고, 十은 ‘阡陌’ 즉 동서(陌)나 남북(阡)으로 낸 밭두둑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段玉裁도 口는 큰 밭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고, 十은 縱橫, 즉 가로와 세로라고 하였으므로, 역시 ‘밭두둑’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다음은 ‘田’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詩經·鄭風』: “叔이 사냥을 나가니(叔于田.)의 傳에 “田은 짐승을 잡는 것이다.(田, 取禽也.)”<sup>14)</sup>

『康熙字典』: “『周易大全』『恒卦』 “사냥터에 짐승이 없다.”의 疏에 “田은 사냥이다.(『易·恆卦』 田無禽. 疏 田者, 田獵也.)”<sup>15)</sup>

『左傳·莊公』 8년: “궤구에서 사냥을 하였다.(遂田於貝丘.)의 傳에 “田은 ‘사냥하다.’이다.”(田, 獵也.)<sup>16)</sup>

『左傳·僖公』 24년: “그 후 내가 적나라의 임금을 따라 위수 강가에서 사냥을 하였다.(其後余從狄君以田渭濱.)의 傳에 “田은 ‘사냥하다.’이다.”(田, 獵也.)<sup>17)</sup>

『左傳·宣公』 2년: “宣子(趙盾)은 수양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宣子田於首山.)의 傳에 “田은 ‘사냥하다.’이다.(田, 獵也.)”<sup>18)</sup>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어업과 수렵시대의 주요 생산 활동은 사냥이었고, 농업시대의 주요 생산 활동은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냥하다.’의 田과 ‘농사짓다.’의 田은 동원자이다.(漁獵時代, 主要生產是田獵. 農業時代, 主要生產是種田. 所以田獵的‘田’和種田的‘田’同源.)”<sup>19)</sup>라고 하였다. 王力の 말에 따르면, ‘田’이 생산 활동을 표현한 글자이며, 시대에

14)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上』, 전통문화연구회, 1996, p.187.

15) 漢語大詞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pp709.

16)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上』(四書五經 10), 三星文化社, 1985, p.176.

17)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上』(四書五經 10), 三星文化社, 1985, p.362.

18)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中』(四書五經 11), 三星文化社, 1985, p.16.

19)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91, p.531.

따라 활동 내용이 달랐을 뿐이므로, ‘밭, 농사짓다.’, ‘사냥하다.’라는 뜻 모두가 ‘田’의 本義가 된다. 봄과 여름에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가려서 사냥하였고, 경작지였던 ‘밭’이 농사가 끝나면 사냥터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田’이 주요 생산 활동인 ‘농사’와 ‘사냥’ 모두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田’의 甲骨文은 田(粹 1222), 田(粹1223), 田(鐵 85.1)<sup>20</sup> 등과 같이 땅을 구획지어 나눈 모양을 상형하였다. 金文도 田(告田罈), 田(克鼎), 田(孟鼎)<sup>21</sup> 등으로 갑골문의 자형과 같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田’은 밭을 상형한 것에서 그 뜻이引申되어 ‘밭을 갈다,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田’이 ‘사냥하다.’와 ‘농사짓다.’라는 두 종류의 뜻을 모두 포함하게 된 것은 바로 경작지가 곧 사냥터였던 시대적 환경에게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佃(사냥할 전, 밭갈 전)

許慎은 佃의 字源에 대해 『說文·人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佃은 ‘中佃’이다. 人이 뜻을 나타내고, 田이 소리를 나타낸다. 『春秋傳』에 이 르기를 “中佃에 타다.”라고 하였다. (中佃은) 끌채가 하나인 수레이다. 반절은 堂練切(전←던)이다.(佃, 中也. 从人, 田聲. 『春秋傳』曰 “乘中佃.” 一轅車. 堂練切.)<sup>22</sup>

許慎은 ‘佃’의 본의를 ‘中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2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22.

21)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982.

22)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166. :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中佃’ 두 글자를 보충하였는데, 『說文解字』의 해석도 단옥제의 설명을 따라 ‘중전은 끌채가 하나인 수레이다.’라고 풀이하였다.(春秋傳曰 乘中佃. 中佃, 二字今補.)

馬叙倫 : 沈濤가 『龍龕手鑑』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佃은 끌채가 하나인 수레로 옛날 卿의 수레이다.”라고 하였다.(沈濤曰 龍龕手鑑引 佃, 一轅車. 古卿車也.)”라고 하였고, 高田忠周는 佃과 甸은 같은 글자라고 하였다.<sup>23)</sup>

段玉裁 : 『春秋傳』에 이르기를 ‘中佃을 타다.’라고 하였는데, 中佃은 끌채가 하나인 수레이다. 『左傳·哀公』 17년 ‘혼량부는 卿의 수레인 말 네 필이 끄는 마차에 타다.’의 杜預 注에 ‘衷甸은 끌채가 하나인 卿의 수레이다.’라고 하였다. 허신이 ‘中佃’이라고 한 근거는 傳을 인용하여 풀이한 것이다. 공영달이 말하기를 ‘甸은 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방의 언덕을 甸이라고 한다. 수레 1승을 내기 때문에 甸으로 이름을 삼은 것이다. 아마도 네 마리의 말을 上乘이라고 하고, 두 마리의 말을 中乘이라고 하는 듯하다. 허신이 받아들인 뜻은 공영달의 설과 같다. 일설에는 ‘끌채가 하나이고 수말이 두 마리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나의 끌채가 두 수말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또한 ‘中’이다. 그러므로 거듭 말하여 ‘中佃’이라고 한 것이다.(春秋傳曰 乘中佃. 中佃, 一轅車也. 左傳哀公十七年. 渾良夫乘衷甸兩牡. 杜曰 衷甸, 一轅卿車. 許所據作中佃, 引傳而釋之者. 孔穎達曰 甸, 乘也. 四丘爲甸. 出車一乘. 故以甸爲名. 蓋四馬爲上乘, 二馬爲中乘. 容許意同孔. 一曰 一轅兩牡. 則一轅在兩牡之中. 是亦中也. 故象言之曰中佃.)<sup>24)</sup>

『說文古本考』 : 佃의 뜻은 中이다. 인신하여 中乘을 칭하게 되었다.(佃訓中. 引申爲中乘之稱.)

『說文繫傳』 : 서개가 말하기를 ‘佃의 뜻은 中이다. 옛날에 물건을 싣는 큰 수레는 끌채가 두 개이고, 사람이 타는 수레는 끌채가 하나이며, 中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臣鍇曰 佃訓中也. 古載物大車雙轅, 乘車一轅當中也.)<sup>25)</sup>

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中佃’은 대부가 타는 수레인 上乘 다음 등급으로, 끌채가 하나이며 네 마리 혹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說文』에서 『春秋傳』의 “乘中佃.”이라는 말을 인용한 것도 ‘中’이 ‘中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衷’과 ‘中’의 上古音은 모두 冬韻 端紐이고 中古音은 知韻 東紐<sup>26)</sup>로 雙聲 疊韻 관계이므로

23)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7冊, 上海教育出版社, 2002, p.384.

24)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78.

25)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 1988, p.8135. : 『說文古本考』, 『說文繫傳』.

同音으로 추정된다.音が 같거나 가까우면 음이 같거나 가까운 글자로써 뜻을 서로 통하게 하였으므로<sup>27)</sup> 杜預가 『左傳』을 주석하면서 ‘中佃’을 ‘衷佃’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허신이 말한 ‘中’은 ‘中佃(衷佃)’ 즉 ‘中乘’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다음은 ‘佃’을 ‘사냥하다.’, ‘밭을 갈다.’라는 뜻으로 풀이한 예이다.

朱駿聲 : “이것은 아마도 가차하여 ‘乘(타다)’자로 삼았을 것이다. 佃자의 본 의는 ‘밭을 갈다.’이다.(此義蓋借爲乘字. 佃字本訓當爲治田也.)”, 또 가차하여 ‘畋’으로 썼다고 했는데, 이는 ‘사냥하다.’라는 뜻이다.<sup>28)</sup>

『周易·繫辭傳』: 줄을 결합하여 그물을 만들어 짐승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쳤다.(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sup>29)</sup>

『廣韻·霰韻』: 밭을 경작하다.(營田), 『玉篇』: 농사를 짓다.(作田也.)<sup>30)</sup>

『周易』에는 ‘佃’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사냥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廣韻』과 『玉篇』에도 ‘밭을 갈다.’라는 의미로 썼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지금의 뜻은 옛날의 뜻이 아니다. 許慎의 『說文·支部』에 畋자가 있으므로 佃자로 그러한 뜻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허신이 설명한 것은 옛 뜻을 전한 것이다. (今義非古義也. 許支部自有畋字, 不必用佃爲之. 許所說者, 相傳古義.)”라고 하였는데, 이는 글자의 뜻이 轉義되어 ‘佃’을 ‘밭을 갈다.’라는 뜻으로 쓰게

26)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284면.

27)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p.403. : 『辭海』에서도 “衷은 中과 통한다.(衷通中.)”라고 하였다.

28) (清)朱駿聲 編著,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4, p.851.

29) 朴一峰 譯著, 『周易』, 育文社, 1997, p.592. : 網은 짐승을 잡는데 사용하는 것. 罟는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는 것. 網으로 짐승을 잡는 것을 佃이라고 한다. 罟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漁라고 한다.

30) 根據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387. ;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3. : 『廣韻』에서 ‘佃’을 풀이하기를 ‘營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 관전의 한 형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논밭을 돌보고 농사짓는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뜻을 취하여 풀이하였다.

되었다는 말이다.

許慎이 ‘佃’에 대해 ‘中也’라고 한 것은 ‘中佃’ 즉 ‘中乘’의 수레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佃’을 ‘수레’라고 한 것은 본의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 ‘佃’이 ‘田(사냥하다.)’을 부견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사냥하다.’라는 뜻을 나타냈고, 사냥이나 군사 훈련을 위해 타는 수레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차하여 이러한 뜻으로 썼을 것이다.

여러 典籍의 내용을 보면 ‘佃’의 본의는 ‘밭을 갈다.’이고, 引伸 혹은 假借하여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佃’이 ‘밭을 갈다.’, ‘사냥하다.’, ‘소작인’ 등의 뜻으로 쓰인다.

#### 4) 畋(사냥할 전, 밭갈 전)

許慎은 畋의 字源에 대해 『說文·支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畋은 ‘밭을 갈다.’이다. 支과 田으로 이루어졌다. 『周書』에 이르기를 ‘너의 밭을 갈다.’라고 하였다. 반절은 待年切(전←던)이다.(畋, 平田也. 从支, 田. 『周書』曰 畋爾田. 待年切.)<sup>31)</sup>

許慎은 ‘畋’의 본의를 ‘밭을 갈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농사를 짓다. 『詩經·齊風』에서 ‘큰 밭을 농사짓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앞의 田은 畋(농사짓다.)字이다.(平田也. 齊風. 無田甫田. 上田卽畋字)”<sup>32)</sup>라고 하였다. 역시 ‘밭을 갈다, 농사짓다’라는 뜻이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내가 생각건대 이것은 佃자의 뜻이다. 畋은 마땅히 ‘사냥하다.’의 뜻이다.(按此當爲佃字之訓. 畋當訓獵也.)”<sup>33)</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姚孝遂는 朱駿聲이 畋을 ‘獵’이라고 풀이한 것은 옳지

31)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69.

32)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126.

33) (清)朱駿聲 編著,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4, p.851.

않으며, 갑골문에서 ‘사냥하다.’는 뜻의 글자는 모두 ‘田’을 썼다고 하였다.<sup>34)</sup> 『康熙字典』에는 “『張衡·西京賦』에 ‘사냥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구나.’라고 하였다. 혹 甸으로 쓴다. 狝·戲으로 쓰기도 하고, 田·佃과 통용된다.(『張衡·西京賦』 盤于游畋, 其樂只且. 或作甸. 亦作狝戲. 通作田佃.)”<sup>35)</sup>라고 하였으므로 ‘畋’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말이다. 『書經·夏書』 「五子之歌」에 “낙수의 바깥으로 사냥을 나가(畋于有洛之表.)”<sup>36)</sup>라고 하였고, 『廣韻·先韻』에도 ‘畋’에 대해 “짐승을 잡는 것이다.(取禽獸也.)”<sup>37)</sup>라고 하였다.

허신은 ‘畋’에 대해 ‘平田’이라고 하였는데, ‘밭을 갈다, 농사를 짓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고, 『詩經』에도 ‘농사짓다.’라는 뜻으로 썼다. 그러나 ‘畋’은 ‘甸’이나 ‘狝·戲’으로 쓰기도 하고, ‘田·佃’과 통용되어 썼기 때문에 가차하여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들 글자는 공통적으로 ‘田’을 부건으로 취하고 있고,音が 같으므로 통용된 것이다.<sup>38)</sup>

이상으로 田, 佃, 畋의 자원을 분석하였다. 이들 글자의 본의는 ‘밭’, 혹은 ‘밭을 갈다, 경작하다.’이다. 그러나 세 글자가 통용되어 사용되었고, 인식되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34)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p.2133. : 원문인용은 생략함.

35) 漢語大詞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p.713.

36) 金冠植 譯解, 『書經』(四書五經 4), 三星文化社, 1982, p.104.

37)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112.

38)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209, p.210. : 甸, 佃, 畋의 상고음은 眞韻 定紐, 중고음은 霰韻 定紐이고, 田의 상고음은 眞韻 定紐, 중고음은 先韻 定紐이다. 이들의 상고음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聲母와 韻母가 같아 疊韻 雙聲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두 同音이다.

## 2. 사냥의 道具와 方法

인간은 사냥을 위해 짐승을 쫓거나 잡을 때, 혹은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사냥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므로, 인간은 보다 쉽게 동물을 잡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왔다.

다음은 사냥 할 때 사용하는 무기 중 ‘弋’과 ‘弓’, 그물을 뜻하는 한자인 ‘羅’와 ‘罟’, ‘率’의 字源이다. 또 사냥에 이용한 사냥개를 뜻하는 狜과 매를 뜻하는 雁(鷹)의 字源, 함정을 이용한 사냥의 근거를 엿볼 수 있는 ‘陷’, 그리고 불을 놓는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爨’의 자원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사냥의 道具

#### (1) 武器

##### ① 弋(주살 익)

許慎은 弋의 字源에 대해『說文·尸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弋은 ‘말뚝’이다. 나무를 잘라 뾰족하게 나타난 모양을 그린 것이다. 尸가 뜻을 나타낸다. 물건이 걸려 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반절은 與職切(익)이다.  
(弋, 槩也. 象折木衰銳著形. 從尸. 象物挂之也. 與職切.)<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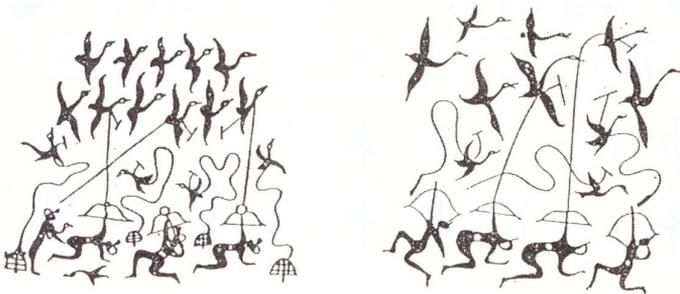
許慎은 ‘弋’의 본의를 ‘말뚝’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弋’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뚝이다. 木部 槩자의 설명에 ‘弋’이라고 하였다. 두 글자는 전주이다. 『爾雅』에 이르기를 ‘槩은 杙(말뚝)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俗言으로 杙을 弋으로 여긴다. 그러나 弋을 ‘주살로 쏘다.’라는 뜻의 글자로 여겨

39)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65.

오래도록 잘 못 써왔다. … 弋은 상형이다. 그러므로 木을 따르지 않는다.(槩也. 木部槩下曰 弋也. 二篆爲轉注. 爾雅曰 槩謂之杙. 按俗用杙爲弋. 顧用弋爲雉射字. 其誤久矣. … 弋象形. 故不从木也.)<sup>40)</sup>

말뚝이란 나무를 잘라 만든 것으로 사물이나 경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고, 주살은 오늬에 줄을 매어 쏘는 화살을 가리킨다.<sup>41)</sup> 許慎은 ‘주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단옥제도 ‘弋’이 ‘말뚝’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論語·述而』 “주살질은 하시되 잡자는 새를 쏘아 잡지는 않으셨다.(弋不射宿.)”의 注에 “弋은 生絲를 화살에 매어서 쏘는 것이다.(弋, 以生絲繫矢而射也.)”라고 하였고 『玉篇』에도 “주살로 쏘는 것이다.(繳射也.)”<sup>42)</sup>라고 하였다. 『周禮·夏官·司弓矢』에 “矰矢와 箝矢는 주살을 쏘는데 쓴다.(矰矢箝矢用諸弋射.)”, 『周禮·冬官·考工記』에 “궁인은 활을 만드는 기술자로, 나가는 체중이 많고, 되돌아오는 체중이 적은 것을 협유의 무리라고 이르는데 과녁을 쏘거나 주살을 쏘는데 이롭다.(弓人爲弓, 往體多, 來體寡, 謂之夾庾之屬, 利射侯與弋.)”<sup>43)</sup>라고 하였다. 또 『詩經·鄭風』 「女曰雞鳴」 “오리와 기러기를 주살로 잡아 올지어다.(弋鳧與鴈.)”의 疏에 “弋은 줄을 맨 화살로 쏘는 것을 이른다.(弋謂以繩繫矢而射也.)”<sup>44)</sup>라고 하



주살을 이용하여 사냥하는 모습

40)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627.

41) 주살은 활에 화살을 줄로 매단 것, 즉 줄살에서 비롯된 말로 ‘리’가 탈락하여 ‘주살’이 되었다.

였다. 이상의 여러 典籍에서 ‘弋’은 ‘주살을 쏘는 것’을 의미하였고, 본문에 발췌한 그림<sup>45)</sup>에도 주살을 이용하여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弋’은 줄을 매어 쏘는 화살이며, 사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신이 𠄎가 뜻을 나타내며, 물건이 걸려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고 하였는데, 林義光은 이에 대해 중간에 마디가 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지 물건이 걸려있는 것을 상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46)</sup> 弋의 소전은 𠄎인데, 허신이 𠄎라고 한 부분은 중간의 𠄎를 가리키고, 예서(弋 : 佐弋瓦)<sup>47)</sup>에서 一의 모양으로 연변되었다. 𠄎는 𠄎으로 𠄎는 𠄎로 각각 연변되어 현재의 자형 弋이 되었다.

## ② 弓(활 궁)

許愼은 弓의 字源에 대해 『說文·弓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弓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는 것’이다. 상형이다. 옛날에 ‘揮가 활을 만들었다. 『周禮』에 六弓이 있는데, 왕궁과 호궁은 활쏘기를 겨루고 무예연습을 하는 자에게 주고, 협궁과 수궁은 들개가족 과녁을 쏘거나 새와 짐승을 잡는 자에게 주고, 당궁과 대궁은 활쏘기를 배우는 자에게 준다고 하였다. 弓부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弓을 따른다. 반절은 居戎切(弓←궁)이다.(弓, 以近窮遠象形. 古者揮作弓. 『周禮』 六弓. 王弓·弧弓以射甲革甚質. 夾弓·庾弓以射干侯鳥獸. 唐弓·大弓以授學射者. 凡弓之屬皆从弓. 居戎切.)<sup>48)</sup>

42) 成百曉,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p.141. ;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32.

43) 이준영 해역, 『주례』, 도서출판 자유문고, 2002, p.372. p.541.

44)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上』, 전통문화연구회, 1996, p.196.

45) 김중혁, 『부수를 알면 한자가 보인다』, 학민사, 1996, p.100.

4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9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917. : 一象中有節形. 非物挂之也.

47)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95.

48) 許愼,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69.

‘弓’은 활의 모양을 본 뜬 상형자이다. 弓의 갑골문과 금문은 활에 줄을 맨 모양인 𠄎(갑골문 : 前 15.7.2), 𠄎(금문 : 己爵)의 형태와 줄을 풀어 놓은 모양인 𠄎(갑골문 : 前 5.8.3), 𠄎(伯晨鼎)<sup>49)</sup>의 형태로 썼다. 현재의 자형은 줄을 풀어 놓은 활의 모양을 취하여 쓴 것이다. 許慎이 ‘弓’의 본의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 것은 활을 멀리 쏘아 보내기 때문이다. 활은 멀리 있는 사물을 쏘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사냥을 할 때 가장 유용한 무기였을 것이다.

## (2) 그물

### ① 羅(새 그물 라)

許慎은 羅의 字源에 대해 『說文·网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羅는 ‘실로 만든 새 그물’이다. 网과 維로 이루어졌다. 옛날에 芒씨가 처음 그물을 만들었다. 반절은 魯何切(라)이다.(羅, 以絲罟鳥也. 从网, 从維. 古者芒氏初作羅. 魯何切.)<sup>50)</sup>

許慎은 ‘羅’의 본의를 ‘새 그물’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爾雅·釋器』에 새그물을 ‘羅’라고 하였다. 『王風傳』에 이르기까지 새그물을 ‘羅’라고 하였다. 혹은 ‘罹’로 쓰기도 한다.(釋器. 鳥罟謂之羅. 王風傳曰, 鳥網爲羅. 或作罹.)<sup>51)</sup>”라고 하였다. 『禮記·王制』에도 “비둘기가 화해서 새매가 된다는 중추의 계절이 되어야만 새그물을 펴 놓아서 새를 잡았다.(鳩化爲鷹, 然後設罽羅.)<sup>52)</sup>”라고 하였다.

49)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01. ;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48.

50)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157.

51)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56.

52) 李民樹 譯解, 『禮記 上』(四書五經 7), 三星文化社, 1985, p.283.

‘羅’의 갑골문은  (乙 4502),  (甲265)<sup>53)</sup>와 같이 새가 그물(, ) 안에 들어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 소전에 이르러 糸가 첨가된 의 형태가 되어서 실로 만든 그물의 뜻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갑골문과 소전의 자형으로 미루어 볼 때 ‘羅’는 새를 잡는 그물을 의미하는 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② 畢(그물 필)

許慎은 畢의 字源에 대해 『說文·犛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畢은 ‘사냥그물’이다. 犛로 이루어졌다. 그물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작은 그물이다. 혹은 由이 소리를 나타낸다고 한다. 서현이 말하기를 ‘由의 음은 ‘발’이다.’라고 하였다. 반절은 卑吉切(필←빌)이다.(畢, 田罔也. 从犛. 象畢形. 微也. 或曰 由聲. 臣鉉等曰 由音弗. 卑吉切.)<sup>54)</sup>

허신은 ‘畢’의 본의를 ‘사냥 그물’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사냥그물이다.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물을 이른다. 『詩經·小雅』毛傳에 ‘畢은 토끼를 잡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禮記·月令』注에 그물이 작고 자루가 긴 것을 畢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건대, 『鴛鴦傳』에 이르기를 ‘그물로 감싸서 잡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토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새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 자루가 길고 중간 부분을 잡을 수 있다.(田罔也. 謂田獵之罔也. 小雅毛傳曰 畢所以掩兔也. 月令注曰 罔小而柄長謂之畢. 按鴛鴦傳云 畢掩而羅之. 然則不獨掩兔, 亦可掩鳥. … 柄長而中可受.)”<sup>55)</sup>라고 하였다.

5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332.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7冊, 上海教育出版社, 2002, p.130. ‘羅’의 금문자형은 보이지 않는다.

54)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83.

55)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158.

羅振玉은 『古文字詁林』에서 “𦉳, 𦉴, 𦉵, 𦉶 갑골문의 여러 글자는 바로 그물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아래는 손잡이가 있다. 혹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을 더하기도 한다.(𦉳 𦉴 𦉵 𦉶 卜辭諸字正象罔形. 下有柄. 或增又持之.)”라고 하였다. 또 丁山은 “갑골문에 𦉴가 매우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 ‘사냥하다.’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甲骨文所見 𦉴字甚衆, 其辭多與田獵有關.)”<sup>56)</sup>라고 하였으므로 ‘畢’이 사냥할 때 사용했던 그물을 뜻한다는 말이다.

갑골문 𦉴의 자형은 그물을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인데, 손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 크기가 작은 것이다. 그물의 자루가 긴 형태인 것으로 보아 손에 그물을 잡고 사냥의 대상을 덮어 씌워서 포획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허신이 ‘微也.’라고 한 것도 바로 ‘畢’이 작은 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畢’은 크기가 작은 새나 짐승, 물고기, 곤충과 같은 것을 사냥할 때 사용했던 그물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 ③ 率(거느릴 술, 새그물 수)

許慎은 率의 字源에 대해 『說文·率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率은 새를 잡는 그물이다. 실로 만든 그물을 본 뜬 것이다. 위와 아래는 장대와 자루이다. 率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率을 따른다. 반절은 所律切(술←술)이다.(率, 捕鳥畢也. 象絲罔, 上下其竿柄也. 凡率之屬皆从率. 所律切.)<sup>57)</sup>

許慎은 ‘率’의 본의를 ‘새를 잡는 그물’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率’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畢은 사냥 그물이다. 새를 잡는 그물로 率이라고도 한다. 내가 생각건대, 전문에서는 본의가 유행하지 않았다. 衛은 ‘거느리다.’이고, 遼은 ‘이끌다.’라는

5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4冊, 上海教育出版社, 2001, p.268.

57)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78.

뜻이다. 모두 본자를 쓰지 않고 率자를 썼다. 또 帥(통솔하다.)로 쓰기도 했다. 예를 들면, 『詩經·大雅』「**緜**」의 傳에 이르기를 ‘率은 ‘따르다.’이다.’라고 하였고, 『詩經·北山之什』「**北山**」의 傳에 이르기를 ‘率은 ‘따르다.’이다.’라고 하였다. 『左傳·桓公』2년에 藻率(마름풀을 수놓은 수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服虔이 말하기를 ‘예에는 率巾이 있다.’라고 하였다. 곧 허신의 책 『說文解字』의 ‘帥자이다. 실로 만든 그물을 본떴다는 것은 **𦉳**을 이른다. 위와 아래는 장대와 자루라고 한 것은 위는 장대가 드러난 것(**一**)이고, 아래는 손잡이(**十**)이라는 말이다. 사냥 그물은 자루가 길다.(畢者, 田网也. 所以捕鳥. 亦名率. 按此篆本義不行. 凡術訓將術也. 達訓先導也. 皆不用本字而用率. 又或用帥. 如緜傳云率循也. 北山傳云率循也. 其字皆當作達是也. 又詳帥下. 左傳藻率. 服虔曰 禮有率巾. 卽許書之帥也. 象絲网. 謂**𦉳**. 上下其竿柄也. 上其竿之露者, 下其柄也. 畢网長柄.)<sup>58)</sup>

段玉裁도 ‘率’의 자형을 분석하여 ‘새 그물’이라고 하고, ‘거느리다.’라는 뜻은 인신의로 보았다. 羅振玉은 “단옥재는 ‘실로 짠 그물을 **𦉳**’이라고 한 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孟鼎에서는 率을 **𦉳**로 썼고, 師襄散에는 達이 **𦉳**을 따랐다. 모두 복사와 같다. 다만 실로 짠 그물을 상형한 것이다.(段君曰, 象絲网謂**𦉳**. 案孟鼎率作**𦉳**. 師襄散達從**𦉳**. 均與卜辭同. 但象絲网形.)<sup>59)</sup>라고 하였다. 羅振玉은 ‘率’에 대해 ‘새를 잡는 그물’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실로 짠 그물을 상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秦永龍은 『西周金文選注』에서 許慎이 ‘率’을 ‘새를 잡는 그물’이라고 한 것은 字形이나 字意를 모두 잘 못 분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率’을 갑골문에서 **𠂔**(甲 308)<sup>60)</sup>로 썼는데, **𠂔**는 糸와 같아서 ‘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본의는 ‘끌다.(牽引.)’이며, 인신하여 ‘거느리다, 인도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다.<sup>61)</sup> ‘率’의 금문도 **𦉳**(孟鼎)<sup>62)</sup>로 써서

5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663.

59)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10.

6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08.

61) 秦永龍 編著, 『西周金文選注』,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p.167. 원문인용은 생략함.

갑골문과 유사하다. 갑골문과 금문 자형의 𠂇는 실타래를 끈 것이고, 좌우의 丨는 실을 꼬았을 때 옆으로 빠져나온 실의 잔털을 상형한 것으로 보인다. 毛公鼎에는 𠂇가 결구되어 있는 자형인 𠂇로 썼는데 이것은 衛로, 師寰散<sup>63)</sup>에는 𠂇와 결구되어 攬로 썼는데, 이 글자는 達로 隸定할 수 있다. 郭沫若도 『古文字詁林』에서 “達자를 어떤 기물에는 𠂇로 썼는데, ‘거느리다.’라고 할 때의 率의 本字이다.(達字一器作 𠂇, 卽 領率之率誌本字.)”라고 하였고, 吳大澂도 𠂇이 곧 率자라고 하였다.

衛는 『說文』에서 “거느리다.(將衛也.)”<sup>64)</sup>라고 하였고, 達은 “이끌다.(先道也.)”<sup>65)</sup>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衛와 達이 ‘率’을 성부로 한 형성자라고 하고 자의도 ‘거느리다.’, ‘이끌다.’라고 구별하여, 率, 衛, 達을 각각 다른 글자로 풀이하였다.

許慎은 ‘率’을 ‘새 그물’이라고 하였고, 단옥재도 ‘率’의 자형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허신의 설을 따랐다. ‘率’의 자형 및 자의에 대해 어떤 학자는 ‘그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실, 끈’을 상형한 것이라고 하였다. 甲骨文과 金文으로 미루어 보면 ‘率’은 실을 꼬아 놓은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 보인다. 許慎과 段玉裁는 갑골문과 금문을 보지 못하고 소전 자형만으로 자형과 자의를 분석하였을 것이고, 아마도 당시에는 ‘率’이 ‘새 그물’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기 때문에 자의를 근거로 자형을 분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衛와 達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두 글자의 구건 行과 辵이 생략된 자형인 率이 ‘거느리다.’의 뜻으로 전용됨에 따라 두 글자의 사용 빈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62)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73.

63)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9.

64)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44.

65)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9.

## 2) 사냥의 方法

### (1) 동물을 이용한 사냥

#### ① 狠(사나운 개 연, 범 쫓는 개 연)

許慎은 狠의 字源에 대해 『說文·犬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狠은 ‘사나운 개’이다. 犬이 뜻을 나타내고, 开이 소리를 나타낸다. 일설에는 호랑이를 쫓는 개라고 한다. 반절은 五旬切(연←언)이다.(狠, 獠犬也. 从犬, 开聲. 一曰逐虎犬也. 五旬切.)<sup>66)</sup>

許慎은 ‘狠’의 본의를 ‘사나운 개’ 혹은 ‘호랑이를 쫓는 개’라고 하였다. 『廣韻·霰韻』에는 “짐승을 쫓는 개이다.(逐獸犬也.)”<sup>67)</sup>라고 하였다. ‘獠’는 『廣韻·嘯韻』에 “미친개이다.(狂犬.)”<sup>68)</sup>라고 하였고, 桂馥은 『類篇』에서 “獠는 사나운 개다.(獠, 獠也)”<sup>69)</sup>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모두 ‘사나운 개’를 뜻한다.

개를 이용하여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몰아 사냥하는 것은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냥의 방법이다. ‘狠’은 짐승을 쫓게 하여 사냥하는데 이용했던 용맹하고 사나운 개를 가리키는 글자이다. 따라서 ‘사나운 개’ 혹은 ‘호랑이나 짐승을 쫓는 개’라는 의미를 가진다.

#### ② 雁(매 응)

許慎은 雁(鷹)의 字源에 대해 『說文·隹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雁은 ‘매’이다. 隹가 뜻을 나타내고, 瘖의 생략된 자형이 소리를 나타낸다. 瘖

66)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5.

67)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388.

68)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393.

69) 桂馥, 『說文解字義證』, 中華書局, 1987, p.857.

人으로 구성되고 人이 또한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서게가 말하기를 “매는 사람이 가리키는 흔적을 따르니人を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절은 於凌切(응)이다. 鷹는 전문 雁으로 鳥를 따른다.(雁, 鳥也. 从隹, 瘖省聲. 或从人, 人亦聲. 徐鍇曰“鷹隨人所指蹤, 故从人.” 於凌切. 鷹 籀文雁从鳥.)<sup>70)</sup>

許慎은 雁(鷹)의 본의를 ‘鳥也.’라고 하였으므로 새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 徐鍇가 사람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새 중에서 ‘매’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左傳』에 ‘송골매가 鳥雀을 쫓는 것과 같다.’, 『爾雅·釋鳥』의 ‘鷹은 來鳩이다.’에 대해 곽박이 말하기를 ‘來는 마땅히 爽으로 써야 한다.’ 『左傳』 ‘爽鳩氏는 司寇이다.’에 대해 두예가 말하기를 ‘爽鳩는 매이다.’라고 하였다.(左傳, 如鷹鶴之逐鳥雀. 釋鳥, 鷹來鳩. 郭云, 來當爲爽. 按左傳 爽鳩氏司寇也. 杜曰, 爽鳩, 鷹也.)<sup>71)</sup>

段玉裁는 『左傳』을 인용하여 ‘鷹’을 ‘매’라고 풀이하였다. 『廣韻·蒸韻』에 “새 이름이다. 『禮記·月令』에서 ‘경칩 일에 매가 변하여 비둘기가 된다.(鳥名. 月令曰驚蟄之日鷹化爲鳩.)”<sup>72)</sup>라고 하였다. 『玉篇』에서 ‘雁’을 지금은 ‘鷹’이라고 쓴다고 하였다.<sup>73)</sup> 雁(鷹)의 金文(鷹)<sup>74)</sup>은 ‘人’과 ‘鳥’가 결합되어 있다. ‘매’는 사람이 길들여 사냥에 사용하므로 ‘人’이 부건으로 결합된 것이다. 王國維는 『古文字詁林』에서 “鷹는 人과 丨을 따른 것인데, 한 쪽 겨드랑이의 모양을 본 뜬 것이다. 鷹는 새가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모양을 따랐으므로 아마도 회의자일 것이다. 매는 항상 사람의 팔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글자를 이와 같이 쓴다.(鷹, 從人從丨. 當象一腋之形. 鷹,

70)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76.

71)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142.

72)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179.

73)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15.

74)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256.

從隹在腋下. 殆會意字. 非形聲字也. 雁常在人臂, 故字如此作.)<sup>75)</sup>라고 하였다.

許愼이 ‘瘡’의 생략된 자형이 ‘鷹’의 聲符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따르기 어렵다.<sup>76)</sup> 지금은 ‘鷹’을 쓰고 ‘雁’은 쓰지 않는데, 금문 자형은 ‘鷹’의 형태이며, 소전에만 ‘疒’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전사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매’는 사람이 길들여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새이므로 ‘人’이 결합되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다.<sup>77)</sup>

## (2) 함정과 불을 이용한 사냥

### ① 陷(빠질 함)

許愼은 陷의 자원에 대해 『說文·阜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陷은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다. 일설에는 ‘떨어지다’이다. 阜와 陷이 뜻을 나타내고, 또 陷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戶 狷切(함)이다.(陷, 高下也. 一曰 陷也. 从阜, 从陷, 陷亦聲. 戶 狷切.)<sup>78)</sup>

許愼은 ‘陷’의 본의를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도

75)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4冊, 上海教育出版社, 2001, p.107.

76) 許愼이 ‘瘡’의 생략된 자형이 성부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雁’의 上古音과 中古音이 蒸韻 影紐이고, ‘瘡’의 상고음과 중고음이 侵韻 影紐이므로 운모는 通轉, 성모는 雙聲이다. 따라서 두 글자의 음이 가깝기 때문에 雁의 성부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雁의 자형 중 금문(𠩺,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256.)이나 예서(鷹,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240.)에서는 ‘瘡’의 자형을 찾기 어렵고, 소전(雁)에서만 부근 ‘疒’이 결합된 자형이 보이므로 ‘瘡’의 생략된 자형이 성부라고 한 허신의 설명은 따르기 어렵다.

77) 姜惠淑, 「根源聲符를 中心으로 한 形聲字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342. 雁(鷹)자조를 발췌하여 요약 수정하였음.

78) 許愼,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05.

『說文解字注』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는 모양을 陷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陷이라고 한다. 뜻이 인신된 것이다. … 무릇 그 속으로 깊이 빠지는 것을 陷이라고 한다.(高下之形曰陷. 故自高入於下亦曰陷. 義之引伸也. … 凡深沒其中曰陷.)라고 하였다.

『甲骨文字詁林』에는 ‘陷’의 여러 자형이 수록되어 있다. ㉠, ㉡, ㉢, ㉣, ㉤, ㉥, ㉦, ㉧, ㉨, ㉩ 등의 자형은 모두 함정 안에 동물이 빠져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 ㉡, ㉢, ㉣, ㉤, ㉥, ㉦의 동물은 鹿이고, ㉧, ㉨, ㉩의 동물은 麋(麋: 큰 사슴 미)이다. 모두 사슴이 함정에 빠진 모습을 상형한 것이라고 하였다.<sup>79)</sup>

허신은 ‘陷’의 본의를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갑골문의 여러 자형을 미루어 살펴보면, ‘陷’은 함정을 이용하여 짐승을 사냥한 것을 의미하는 글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焚(불살라 사냥할 번, 불 땀 분)

許慎은 焚의 字源에 대해 『說文·火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焚은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이다. 火와 𣎵으로 이루어졌는데, 𣎵이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반절은 附袁切(번←뵐)이다.(焚, 燒田也. 从火, 𣎵, 𣎵亦聲. 附袁切.)<sup>80)</sup>

許慎은 ‘焚’의 본의를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다른 본의 篆文은 焚으로 되어 있다. 『玉篇』과 『廣韻』을 살펴보면, 焚은 있는데, 焚은 없다. 『集韻』, 『類篇』에 이르러 焚과 焚이 합해져 한 글자가 되었다.(各本篆作焚. 按玉篇, 廣韻有焚無焚. 至集韻, 類

79)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4冊), 中華書局, 1996, p.1657. ; 姜惠淑, 「根源聲符를 中心으로 한 形聲字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168. 陷자조를 발췌하여 요약 수정하였음.

80)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9.

篇乃合焚燹爲一字.)”<sup>81)</sup>라고 하였다.

郭沫若, 屈萬里, 魯實先 등의 학자들은 ‘焚’과 ‘燹’은 煩簡의 차이가 있는 이체자라고 하였다. 이들은 현재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燹’은 쓰지 않고, ‘焚’을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魯實先은 “燒田은 잡목이 우거진 숲과 풀숲을 태워 사냥하는 일이다.(燒田者, 謂燒其叢林艸萊而事田獵也.)”라고 하였고, 姚孝遂도 “갑골문에 산림을 불태워 들짐승을 몰아 수렵했다는 기록에 혹 焚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燹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焚과 燹은 사냥 방식으로 말한 것이다. 焚은 산림을 불태워 들짐승을 쫓는 것이고, 燹은 봄에 햇불을 들고 들짐승을 쫓아 사냥하는 것이다.(卜辭記狩獵燒山林而驅野獸, 或稱焚, 或稱燹. 焚與燹, 就田獵之方式而言. 焚爲燃燒山林而驅野獸, 燹則爲獵春執火炬以驅野獸.)”<sup>82)</sup>라고 하였다. 魯實先이 갑골문 복사에 ‘焚田’이라는 글이 자주 보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불을 놓아 사냥하는 방식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焚의 갑골문은 林과 火가 결구된 자형(𣎵 : 鐵87.1)과 艸와 火가 결구된 자형(𣎵 : 乙 5500)<sup>83)</sup>의 두 종류가 보인다. 따라서 숲이나 풀숲을 태운다는 뜻을 알 수 있다. 숲에 불을 놓으면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게 되므로 그 짐승을 쫓아서 잡는 사냥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 숲을 불태우는 모양을 상형한 ‘焚’자를 써서 그러한 뜻을 나타내었다.

### 3. 사냥의 時期

본래 사냥을 하는 목적은 음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착생활을 하고 목축을 하게 됨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졌다. 사냥은 심신의 단련, 군

81)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84. ;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188.

82)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p.1987, p.1222.

83)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8冊, 上海教育出版社, 2003, p.690.

사훈련, 전쟁연습, 제사 등을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시기나 목적에 따라 글자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爾雅·釋天』에서 “봄 사냥은 蒐, 여름 사냥은 苗, 가을 사냥은 獮, 겨울 사냥은 狩이다.(春獵爲蒐, 夏獵爲苗, 秋獵爲獮, 冬獵爲狩.)”<sup>84)</sup>라고 하였다. 『春秋公羊傳·桓公』 4년에는 “狩란 무슨 뜻인가. 군사 훈련을 위한 사냥이었다. 봄의 사냥 훈련을 苗라고 하고 가을의 사냥 훈련을 蒐라고 하고, 겨울의 사냥 훈련을 狩라고 한다.(狩者何. 田獵也. 春曰苗, 秋曰蒐, 冬曰狩.)”라고 하였고, 『春秋穀梁傳·桓公』 4년에는 “봄·여름·가을·겨울 네 계절의 사냥은 모두 종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봄 사냥을 田, 여름 사냥을 苗, 가을 사냥을 蒐, 겨울사냥을 狩라고 한다.(四時之田 皆爲宗廟之事也. 春曰田, 夏曰苗, 秋曰蒐, 冬曰狩.)”<sup>85)</sup>라고 하여, 계절별 사냥의 명칭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周禮』와 『爾雅』의 분류를 따른다.

다음은 사냥을 사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稱하는 蒐, 苗, 獮, 狩와 밤 사냥을 가리키는 獠의 자원이다.

## 1) 계절별 사냥

### ① 蒐(꼭두서니 수, 사냥할 수)

許慎은 蒐의 字源에 대해 『說文·艸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蒐는 ‘茅蒐(꼭두서니), 茹蘆(갈퀴꼭두서니)’이다. 사람의 피를 생겨나게 한다. 진홍색으로 물을 들일 수 있다. 艸와 鬼로 이루어졌다. 반절은 所鳩切(수)이다. (蒐, 茅蒐, 茹蘆. 人血所生, 可以染絳. 从艸, 从鬼. 所鳩切.)<sup>86)</sup>

84) 이충구, 임재완, 김병현, 성당제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5.

85) 南基顯 解譯, 『春秋穀梁傳』, 자유문고, 2005, p.82. ; 南基顯 解譯, 『春秋公羊傳』, 자유문고, 2005, p.74.

86)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19.

許慎은 ‘蒐’의 본의를 ‘꼭두서니’라는 풀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詩經·鄭風』에 ‘꼭두서니가 산비탈에 있도다.’라고 했고, 『爾雅·釋草』, 毛傳에 모두 茹蘆, 茅蒐(꼭두서니)라고 하였다. 陸璣가 이르기를 ‘茹蘆, 茅蒐, 菑艸이다. 일명 地血(茜草 : 꼭두서니)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사람의 피가 생겨나고 물들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람의 피가 생긴다고 한 것은 이 글자를 鬼자를 뜻으로 삼아 풀이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대부분 봄 사냥의 뜻으로 썼다.(鄭風 茹蘆在阪. 釋艸, 毛傳皆云. 茹蘆, 茅蒐也. 陸璣云 茹蘆, 茅蒐, 菑艸也. 一名地血. 齊人謂之茜. 徐州人謂之牛蔓. 今圃人或作畦種蒔. 故貨殖傳云 卮茜千石, 亦比千乘之家. … 人血所生. 可染絳云 人血所生者, 釋此字所以從鬼也. 經傳多以為春獵字.)<sup>87)</sup>

꼭두서니는 茅蒐, 茹蘆, 菑艸, 茜草根, 地血, 過山龍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止血이나 瘀血, 吐血 등에 쓰는 약초이다. 따라서 사람의 피가 생겨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經傳에서 ‘蒐’는 본의인 ‘꼭두서니’ 외에 ‘봄 사냥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 ‘모으다’, ‘찾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蒐’의 여러 의미에 대한 풀이이다.

『周禮·大司馬』: 드디어 봄 사냥이 시작되면 유사가 마제를 지낸다. 백성과 맹서한 뒤 북으로써 포위하고 해제하는 법을 알리고 불이 중지되면 잡은 새를 올려서社에 제사지낸다.(遂以蒐田 有司 表貉 誓民鼓遂圍禁火弊 獻禽以祭社.)<sup>88)</sup>

『左傳·隱公』5年: “봄 사냥은 蒐이다.’의注에 “蒐는 새끼를 배지 않은 짐승을 골라 사냥하는 것이다.’(春蒐, 注, 蒐, 擇取不孕者.)<sup>89)</sup>

『爾雅·釋天』: “봄 사냥을 蒐라고 한다.(春獵爲蒐.)”의注 “새끼를 배지 않은

87)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1.

88) 이근영 해역, 『주례』, 도서출판 자유문고, 2002, p.332.

89)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上』(四書五經 10), 三星文化社, 1985, p.65.

짐승을 찾아 잡는 것이다.(搜索取不任者.)<sup>90)</sup>

『爾雅·釋詁』: “蒐는 ‘모으다.’이다.”의 注에 “봄 사냥을 蒐라고 한다. 蒐는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蒐, 聚也. 注, 春獵爲蒐. 蒐者, 以其聚人衆也.)<sup>91)</sup>

『左傳·成公』 16年: 수레를 검열하고 보병을 보충하며, 말에 먹이를 주고 무기를 손질한다.(蒐乘補卒, 秣馬利兵.)<sup>92)</sup>

『周禮·大司馬』에서 ‘蒐’는 군사훈련을 위한 ‘봄 사냥’을 뜻한다. 『左傳·隱公』과 『爾雅·釋天』에서는 ‘봄 사냥’에 ‘찾다.’라는 뜻이 적용되었다. 『爾雅·釋詁』에서는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또 『左傳·成公』에서 ‘蒐’는 ‘검열하다.’이다.

‘蒐’의 본의는 ‘꼭두서니’라는 풀이름이다. 또한 ‘찾다.’, ‘모으다.’, ‘검열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뜻에서 轉義 혹은 引伸되어 ‘봄 사냥’을 가리키는 의미로 借用된 것이다. 일설에는 ‘蒐’가 ‘가을 사냥’을 나타낸다고 한다. 『爾雅·釋天』에서 “가을 사냥을 蒐라고 한 것은 어찌서 인가? 살진 짐승을 찾는 것이다.(秋謂之蒐何. 蒐索肥者也.)<sup>93)</sup>”라고 하였는데, 역시 ‘찾다.’라는 뜻이 적용된 예이다. ‘狩’<sup>94)</sup>도 ‘蒐’와 마찬가지로

90) 이충구, 임재완, 김병헌, 성당제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1.

91) 이충구, 임재완, 김병헌, 성당제 역주, 『爾雅注疏1』,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214.

92) 南晩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中』(四書五經 11), 三星文化社, 1985, p.196.

93) 이충구, 임재완, 김병헌, 성당제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3.

94)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3. : 狩는 『說文·犬部』에서 “狩는 남조의 명경 獫狁(노수)이다. 犬이 뜻을 나타내고, 宀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所鳩切(수)이다.(狩, 南趙名犬獫狁. 从犬, 宀聲. 所鳩切.)”라고 하였다. 『玉篇』에는 ‘狩’는 ‘狩’와 같다고 했고, ‘狩’자 설명에 “개 이름이다. 또 가을 사냥이다. 蒐로 쓰기도 한다.(犬名. 又秋獵也. 亦作蒐.)”라고 하였다.(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10.) 『禮記·祭義』 “사냥에 이르다.(放乎狩狩.)”에서도 ‘사냥’이라는 뜻으로 쓰였다.(李民樹 譯解, 『禮記 下』(四書五經 9), 三星文化社, 1985, p.88.) ‘狩’의 부근 ‘畋’는 畋의 이체자이며, 갑골문은 집안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봄 사냥과 ‘가을 사냥’을 뜻하는데, 두 글자의 반절은 모두 ‘所鳩切’로 동음이므로 통용하여 쓴 것이다.

② 苗(싹 묘, 여름사냥 묘)

許慎은 苗의 字源에 대해 『說文·艸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苗는 ‘풀이 밭에 자라는 것’이다. 艸가 뜻을 나타내고, 田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武鑣切(묘)이다.(苗, 艸生於田者. 从艸, 从田. 武鑣切.)<sup>95)</sup>

許慎은 ‘苗’의 본의를 ‘풀이 밭에 자라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싹’을 가리킨다. 풀을 뜻하는 艸와 밭을 상형한 田으로 이루어진 글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밭에 돌아난 ‘싹’을 가리키는 글자임이 틀림없다. 段玉裁도 “苗는 본래 벼가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로 인해 모든 초목이 처음 돌아난 것의 이름으로 삼는다.(苗本禾未秀之名. 因以爲凡艸木初生之名.)<sup>96)</sup>”라고 하였다.

‘苗’는 경전에서 ‘여름 사냥’의 뜻으로 쓰기도 하였는데, 『周禮·大司馬』에 “드디어 여름 사냥이 시작되면 봄 사냥 때 행한 법과 똑같이 하며, 수레를 달려 사냥하는 모든 일을 중지한 뒤에는 잡은 새를 바쳐서 禘의 제사를 지낸다.(遂以苗田, 如蒐之法, 車弊獻禽以享禘.)<sup>97)</sup>”라고 하였다. 『左傳·隱公』 5年 “여름 사냥은 苗이다.(夏苗)”의 해설에 “苗는 여름 사냥으로 곡식을 해치는 짐승만을 골라서 하는 사냥이다.”<sup>98)</sup>라고 한 것과 『爾雅·釋天』 “여름 사냥을 苗라고 한다.(夏獵爲苗)”의 注에 “농사를 위하여 해를

무언가를 찾는 모양(𠂔)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117. 後2.4.10)을 상형한 것이다. 따라서 짐승을 찾거나 쫓아 사냥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95)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3.

96)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0.

97) 이준영 해역, 『주례』, 도서출판 자유문고, 2002, p.332.

98)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上』(四書五經 10), 三星文化社, 1985, p.66.

끼치는 짐승을 제거하는 것이다.(爲苗稼除害.)<sup>99)</sup>라고 한 것은 ‘苗’자가 ‘여름 사냥으로 쓰인 뜻을 설명한 것이다.

여름은 곡식이 자라는 시기이므로 함부로 땅을 밟지 않아야 하며, 곡식에 해를 끼치는 동물을 가려서 사냥하는 계절이므로 밭에 싹이 돌아난 자형을 표현한 ‘苗’를 ‘여름사냥의 뜻으로 쓴 것이다.

### ③ 獮(獮)(가을 사냥 선)

許慎은 獮의 字源에 대해 『說文·犬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獮은 ‘가을 사냥이다. 犬이 뜻을 나타내고, 璽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息淺切(선)이다. 禘는 獮으로 혹 豕를 따르기도 한다. 종묘의 일을 위한 사냥이다. 그러므로 豕와 示로 이루어졌다.(獮, 秋田也 从犬, 璽聲. 息淺切. 禘, 獮或从豕. 宗廟之田也. 故从豕示.)<sup>100)</sup>

許慎의 『說文』에는 ‘獮’이 ‘獮’으로 되어 있고, 본의는 ‘가을 사냥’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가을 사냥이다. 『爾雅·釋天』에 이르기를 ‘가을 사냥을 獮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鄭玄, 韋昭, 薛綜, 杜預가 모두 말하기를 ‘獮은 사냥감을 잡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秋田也. 釋天曰, 秋獵爲獮. 鄭君, 韋昭, 薛綜, 杜預皆曰 獮, 殺也.)<sup>101)</sup>라고 하였다. 『廣韻·獮韻』에도 “가을 사냥을 獮이라고 한다. 獮은 사냥감을 잡는 것이다.(秋獵曰獮. 獮殺也.)<sup>102)</sup>라고 하였다. 桂馥은 “『周禮·肆師』에 ‘가을 사냥의 날에는 내년에 병란이 없는가를 점치다.’의 鄭注에 ‘가을 사냥을 獮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周禮·大司馬』에 ‘드디어 가을 사냥이 시작되면’의 鄭注에 ‘가을 사냥을 獮이라고 한다. 獮은 사냥감을 잡는 것이다. 가을 사냥

99) 이충구, 임재완, 김병현, 성당계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1.

100)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5.

101)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75.

102)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270.

은 주로 그물을 사용하여 잡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였다.(周禮肆師 獮之日涖卜來歲之戒. 鄭注 秋田爲獮. 周禮大司馬 遂以獮田, 鄭注 秋田爲獮. 獮殺也. 秋田主用罔中殺者多也.)”<sup>103)</sup>라고 하였다.

또 허신이 “禘는 獮으로 흑 豕를 따르기도 한다. 종묘에 제사지내기 위한 사냥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馬叙倫은 “소전에 이르러 잘 못하여 禘가 되었다. 이에 교정하는 자가 示와 豕로 구성된 뜻을 밝히고자 하여 종묘 운운한 것이다.(及小篆譌爲禘. 於是校者欲明從示從豕之義而有宗廟云云矣.)”<sup>104)</sup>라고 하였으므로 ‘獮’은 종묘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獮’은 ‘가을 사냥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모두 그 뜻을 ‘殺也.’라고 풀이 하였다.<sup>105)</sup> 가을은 만물을 익혀 여물게 한 후에 다시 시들게 하는 ‘熟殺’의 기운을 띄는 계절이다. 『爾雅·釋天』 “가을 사냥을 獮이라고 한다.(秋獵爲 獮.)”의 注에도 “가을 기운을 따른 것이다.(順殺氣也.)”<sup>106)</sup>라고 하였다. ‘獮’의 상고음은 脂韻 心紐, ‘殺’의 상고음은 月韻 山紐로 韻母는 旁對轉, 聲母는 隣紐가 되므로 음이 가깝다. 음이 가까우면 뜻 또한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熟殺’의 의미를 취하여 ‘獮’자로써 ‘가을 사냥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 ④ 狩(사냥할 수)

許慎은 狩의 字源에 대해 『說文·犬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狩는 ‘개를 이용한 사냥이다. 犬이 뜻을 나타내고, 守가 소리를 나타낸다. 『周

103) 桂馥, 『說文解字義證』, 中華書局, 1987, p.856.

104)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8冊, 上海教育出版社, 2003, p.593.

105)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上』(四書五經 10), 三星文化社, 1985, p.66.에서 “獮은 殺과 같은 뜻으로 가을에는 만물이 죽어가므로 이 기운에 따라 하는 사냥.”이라고 하였다.

106) 이충구, 임재완, 김병현, 성당제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2.

易』에 이르기를 ‘밝은 빛이 손상되어 남쪽으로 사냥하다.’라고 하였다. 반절은 書究切(수)이다.(狩, 犬田也. 从犬, 守聲. 『易』曰 明夷于南狩. 書究切.)<sup>107)</sup>

허신은 ‘狩’의 본의를 ‘犬田’이라고 하였는데,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狩는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이다. 火는 다른 본에 犬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는다. 지금 『韻會』에 근거하여 바로 잡는다. 『爾雅·釋天』에 이르기를 ‘겨울 사냥을 狩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周禮』, 『左傳』, 『公羊傳』, 『穀梁傳』, 『夏小正傳』, 『毛詩傳』의 내용이 모두 같다. 또 『爾雅·釋天』에 이르기를 ‘겨울 사냥을 狩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허신은 겨울사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만 설명하였다.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은 반드시 겨울에 한다. 『禮記·王制』에 ‘곤충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불을 놓아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을 놓는다는 것은 겨울에 해당된다는 말이다.(狩, 火田也. 火各本作犬. 不可通. 今依韻會正. 釋天曰 冬獵爲狩. 周禮·左傳·公羊·穀梁·夏小正傳·毛詩傳 皆同. 又釋天曰 火田爲狩. 許不侑冬獵而偶火田者, 火田必於冬. 王制曰 昆蟲未蟄. 不以火田. 故言火以該冬也.)<sup>108)</sup>

허신은 ‘狩’를 ‘犬田’이라고 하였으나, 여러 典籍들의 내용에 의하면 ‘火田’ 즉 ‘불을 놓아 짐승을 잡는 겨울 사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爾雅·釋天』에도 “‘불을 놓아 사냥하는 것을 狩라고 한다.’의 注에 ‘불을 놓아 풀을 불살라서 사냥하는 것을 또한 狩라고 한다.’(火田爲狩. 註 放火燒草獵亦爲狩.)”<sup>109)</sup>라고 하였다.

『康熙字典』에서 『白虎通義』를 인용하여 “겨울 사냥을 狩라고 한 것은

107)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5. 明夷: 明夷는 『周易·經』의 ‘地火明夷’라는 卦名이다. ‘夷’는 ‘傷’으로 상하고 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明夷는 ‘밝은 것이 상하고 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明夷于南狩.”는 ‘밝음(밝은 빛)이 손상되어 (밝음을 찾아) 남쪽으로 사냥을 간다.’라는 뜻이다.

10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76.

109) 이충구, 임재완, 김병현, 성당제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6.

무엇 때문인가. 땅을 지켜서 그 땅을 취하기 때문이다.(冬謂之狩何, 守地而取之也.)<sup>110)</sup>라고 하였는데, ‘守(지키다.)’를 의부로 삼아 ‘땅을 지킨다.’고 한 것이다. 『周禮·大司馬』에도 “드디어 겨울사냥이 시작되면 旌으로써 좌우에 和의 문을 만든다. 모든 관리들이 각각 전차와 보병을 거느리고 차례대로 和를 나가 좌우에 전차와 보병을 진열한다. … 큰 짐승을 공격한 것으로 삼고 작은 새는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서 잡은 자는 짐승과 새의 왼쪽 귀를 취한다. … 잡은 새와 짐승으로 郊에 제사지내며 다시 새를 올려서 증제를 지낸다.(遂以狩田 以旌爲左右和之門. 羣吏各帥其車徒以叙和出 左右陳車. … 大獸公之小禽私之獲者取左耳. … 乃弊致禽饁獸于郊入獻禽以享烝.)<sup>111)</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겨울 군사훈련으로서의 사냥을 가리킨다.

羅振玉은 『古文字詁林』에서 “獸와 狩는 통용된다. 옛날에 사냥으로 전쟁연습을 하였다. 그러므로 戰의 생략된 자형을 따랐다. 개에게 사냥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글자가 犬으로 구성되었다. 禽과 獸는 처음의 뜻은 모두 사냥의 의미였다. 이것이 獸와 狩가 같은 글자라는 증거이다.(獸狩通用.

110) 漢語大詞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p.664.

111) 이준영 해역, 『주례』, 도서출판 자유문고, 2002, p.332. : “드디어 겨울사냥이 시작되면 旌으로써 좌우에 和의 문을 만든다. 모든 관리들이 각각 전차와 보병을 거느리고 차례대로 和를 나가 좌우에 전차와 보병을 진열한다. 유사가 공평하게 하여 기를 쭉 사이에 세워서 당을 나누어 전후의 100보에 진지가 있게 한다. 유사가 전후를 순시하고 험한 들에서는 보병을 앞에 있게 하고 유사가 진지 앞에서 마제를 지낸다. 중군이 마상의 북으로 고를 치도록 명령하면 고인이 모두 3번 북을 울리고 모든 사마가 탁을 흔들면 전차와 보병들이 다 일어나고 드디어 고가 행동하면 보병들은 매를 물고 행진한다. 큰 짐승을 공격한 것으로 삼고 작은 새는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서 잡은 자는 짐승과 새의 왼쪽 귀를 취한다. 막다른 곳에 이르면 고를 다 두드리고 전차와 보병은 다 소란스럽게 한다. 보병들을 중지시키고 잡은 새와 짐승으로 郊에 제사지내며 다시 새를 올려서 증제를 지낸다.(遂以狩田以旌爲左右和之門羣吏各帥其車徒以叙和出左右陳車徒有司平之旗居卒間以分地前後有屯百步有司巡其前後險野人爲主易野車爲主. 旣陳乃設驅逆之車有司表貉于陳前. 中軍以鞶令鼓鼓人皆三鼓羣司馬振鐸車徒皆作遂鼓行徒銜枚而進大獸公之小禽私之獲者取左耳. 及所弊鼓皆馳車徒皆譟. 徒乃弊致禽饁獸于郊入獻禽以享烝.)

古者以田狩習戰陳, 故字從戰省. 從犬助田狩, 故字從犬. 禽與獸初誼皆訓田獵, 此獸狩一字之證.”<sup>112)</sup>라고 하였다. 獸의 금문은 𠩺, 𠩻로 썼는데, 왼 쪽 부견 𠩺, 𠩻가 戰의 左旁과 같으므로 獸가 전쟁을 의미하는 戰과 뜻이 통한다는 말이다. 또 사냥할 때 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犬의 자형을 취한 狩와도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王襄도 獸를 가차하여 狩로 썼다고 하였다. 吳其昌, 白玉崢, 馬叙倫 등도 ‘獸’가 本字이고, ‘狩’는 후에 인신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은 ‘狩’가 ‘獸’의 후기자로 ‘사냥’을 뜻하는 글자라고 하였고, 經典에서는 ‘겨울 사냥’의 뜻으로 쓰였다. 처음에는 禽과 獸가 짐승의 구분 없이 모두 ‘사냥’을 뜻했는데, 후에 禽은 ‘날짐승’을, ‘獸’는 ‘길짐승’을 나타내게 되었고, 사냥할 때 개를 이용했기 때문에 ‘犬’을 부견으로 취한 ‘狩’자가 인신되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獸’와 ‘狩’의 상고음 韻母와 聲母는 모두 幽韻 書紐로 疊韻 雙聲 관계이므로 두 글자는 同音이다. 글자의 음이 같으면 뜻 또한 통하기 때문에 이들 글자를 통용하여 썼던 것이다.

## 2) 밤 사냥

### ① 獠(밤 사냥 료)

許慎은 獠의 字源에 대해 『說文·犬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獠는 ‘사냥하다.’이다. 犬이 뜻을 나타내고, 寮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力 昭切(료←로)이다.(獠也. 从犬, 寮聲. 力昭切.)<sup>113)</sup>

許慎은 ‘獠’의 본의를 ‘獵’자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獠를 ‘獵’이라고 한 것은 허신이 渾言한 것이다. 『爾雅·釋天』에서 구

112)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8冊, 上海教育出版社, 2003, p.594.

113)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5.

분하여 말하기를 ‘밤 사냥을 獠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管子四稱篇』에 ‘獠는 그물과 주살로 사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獠獵也. 許渾言之. 釋天析言之曰, 宵田爲獠. 管子四稱篇. 獠獵畢弋.)<sup>114)</sup>라고 하였다. 『廣韻·蕭韻』에도 “밤 사냥이다.(夜獵也.)”<sup>115)</sup>라고 하였다. 『爾雅·釋天』에도 “밤 사냥을 獠라고 한다.’의 注에 ‘지금 강동에서는 獵을 獠라고 한다. 또는 지금 밤 사냥에 화로에 불을 담아 비추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宵田爲獠. 注 今江東呼獵爲獠. 或曰卽今夜獵載鑪照也.)”<sup>116)</sup>라고 하였다.

許慎은 『說文·火部』에서 ‘獠’의 성부인 ‘祭’에 대해 “솥을 태워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火와 春로 구성되었다. 春는 고문 慎자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삼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절은 力照切(료←로)이다.(柴祭天也. 从火, 從春. 春, 古文慎字. 祭天所以慎也. 力照切.)”<sup>117)</sup>라고 하였다. ‘祭’의 갑골문 𤇑(甲 144), 𤇒(佚928)와 금문 𤇑(鄘伯馭簋)<sup>118)</sup>는 나무를 불에 태우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祭’는 ‘태우다, 햇불’이라는 뜻을 가지며, ‘獠’의 성부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햇불을 밝혀 밤에 사냥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있어 의미작용을 겸한다.

### Ⅲ. 結論

태초의 인류는 수렵, 어로, 채집 등의 방법으로 생존을 유지해 왔다. 이후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식량을 얻게 되자 사냥은

114)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76.

115)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128.

116) 이충구, 임재완, 김병헌, 성당계 역주, 『爾雅注疏 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p.355.

117)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07.

118)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410. ;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688.

생산 활동의 한 방법에서 벗어나 심신의 단련, 군사 훈련, 전쟁 연습 등의 일환으로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

인류는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漢字는 表意文字이기 때문에 글자 한 자 한 자에 담긴 함축된 의미가 한자를 창제한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잘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창제 배경을 통해 고대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대의 생산 활동 중의 하나였던 사냥에 관한 한자의 字源을 분석하여 사냥의 풍습, 방법, 시기,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사냥을 할 때에는 무기나 그물, 함정 등을 사용하는데, 무기를 이용한 사냥의 풍속을 알 수 있는 글자는 弓, 弋 등이 있고, 그물을 이용한 사냥 방법을 나타내는 글자는 羅, 畢, 率 등이 있다. 활은 멀리 있는 짐승을 사냥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었을 것이고, 그물은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거나 새를 잡을 때, 혹은 맹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이 몸집이 큰 짐승을 사로잡고자 할 때 매우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또 동물을 사냥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후각이 발달한 개를 이용하여 짐승을 쫓거나 매를 길들여 사용하였다. 狝는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쫓는 개를 가리키는 글자이고, 鷹은 사냥을 하기 위해 길들인 ‘매’를 뜻하는 글자이다. 매를 이용한 사냥은 왕족이나 귀족층에서 가장 많이 즐겼던 사냥 중에 하나였다. 또한 땅을 파서 짐승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불을 놓아 달아나는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도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각각 陷과 燹이다. 갑골문의 罝, 罝, 罝, 罝, 罝는 ‘罝’자로 함정에 짐승이 빠진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이러한 자형으로 미루어 보면 고대에도 함정을 이용한 사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사냥의 명칭을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는데, 계절별로 나누어 봄 사냥을 蒐, 여름 사냥을 苗, 가을 사냥을 獮, 겨울 사냥을 狩, 그리고 밤 사냥은 獠라고 한다. 계절 별 사냥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짐승을 가려서 사냥하는 한편, 군사 훈련이나 전쟁연습을 위한 것이었다.

이상으로 사냥을 나타내는 漢字의 字源分析을 통해 사냥의 방식과 의미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고대인들 및 우리의 선조들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냥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대와 현대의 사냥 방법의 차이는 무기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 매우 유사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활 대신 총을 사용하게 된 것 외에 함정을 이용하거나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나 동물을 잡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고대 벽화를 통해 말을 타면서 활을 쏘아 사냥을 하거나 매를 이용하여 사냥을 했던 풍습을 접할 수 있듯이 한자의 자원을 분석함으로써 고대의 사냥 풍습 및 다양한 사냥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자에는 고대의 문화, 사회, 정치, 풍속 등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漢字의 字源 분석은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參考 文獻〉

- 桂馥, 『說文解字義證』, 中華書局, 1987.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3冊, 上海教育出版社, 2001.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4冊, 上海教育出版社, 2001.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7冊, 上海教育出版社, 2002.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8冊, 上海教育出版社, 2003.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9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91.
-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 1988.
- (清)朱駿聲 編著,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4.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 秦永龍 編著, 『西周金文選注』,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 漢語大字典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 
- 金冠植 譯解, 『書經』(四書五經 4), 三星文化社, 1982.
- 김중혁, 『부수를 알면 한자가 보인다』, 학민사, 1996.
- 南基顯 解譯, 『春秋穀梁傳』, 자유문고, 2005.
- 南基顯 解譯, 『春秋公羊傳』, 자유문고, 2005.
-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上』(四書五經 10), 三星文化社, 1985.

-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中』(四書五經 11), 三星文化社, 1985.  
南晚星, 金相一 譯解, 『左氏傳 下』(四書五經 12), 三星文化社, 1985.  
朴一峰 譯著, 『周易』, 育文社, 1997.  
李民樹 譯解, 『禮記 上』(四書五經 7), 三星文化社, 1985.  
李民樹 譯解, 『禮記 下』(四書五經 9), 三星文化社, 1985.  
이준영 해역, 『주례』, 도서출판 자유문고, 2002.  
이충구·임재완·김병현·성당제 역주, 『爾雅注疏1』,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이충구·임재완·김병현·성당제 역주, 『爾雅注疏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成百曉,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上』, 전통문화연구회, 1996.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下』, 전통문화연구회, 1996.
-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漢語大詞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 姜惠淑, 「根源聲符를 中心으로 한 形聲字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네이버 문화콘텐츠닷컴.  
<https://zidian.51240.com/> 在綫字典

## Abstract

### *A study of the Origin of Chinese Characters in Hunting*

Kang Hyesook\*

This paper analyzes the resources of Chinese characters in hunting.

Long ago, hunting was a way to survive for mankind. Since then, with farming, humans settled in one place and began to raise animals that were hunted, the percentage of hunting has become lower.

As man advances,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e, we became to enjoy hunting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raining of mind and body, military training, entertainment, and memorial services, instead of simply getting out of the way to obtain food. Humans used weapons such as bows and spears to hunt down animals, used dogs and hawks, or made traps, and set traps to hunt animals in various ways. Various hunting methods have been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to present without major changes, and the traces remain in the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hunting. Therefore, analyzing the origin of Chinese characters can help us understand ancient hunting methods and meanings.

Humans developed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letters were generated through the stages of symbols. Because the letters were created by necessity,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the letters shows the social picture of the time.

Since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analyzing the meanings of Chinese characters reveals many aspects of ancient culture, society, politics, and customs.

In this paper, we will learn about the meaning, tools, and methods of hunting, seasonal hunting by analyzing the resources of Chinese characters that represent hunting among the cultures shown in Chinese characters.

---

\* Lecturer, Kongju University / khsuk1780@hanmail.net

**【Key words】** Hunting, A hunting tool, Hunting methods, The meaning of hunting,  
A hunting season

투고일 : 11월 2일, 심사완료일 :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12월 15일